일본 언론 "손흥민,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일본 언론이 손흥민(26, 토트넘)을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했다.

17일 '스포탈코리아' 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맹활약하며 자신의 가치를 끌어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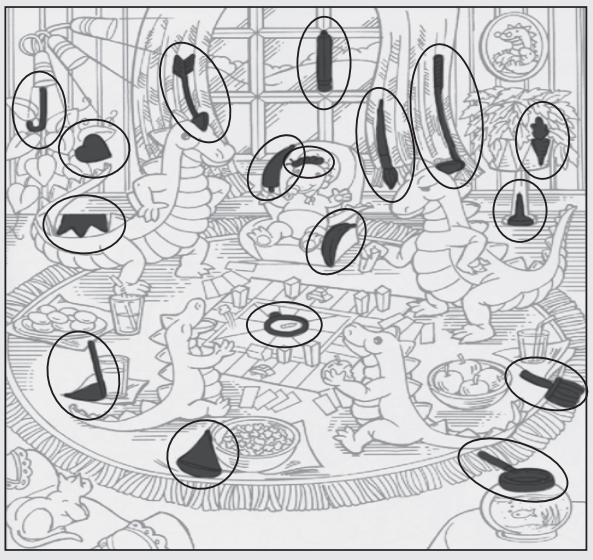
특히 지난 4월 EPL 5경기 1골 1도움, UCL 2경기에서 3골을 터트렸다. 맨체스터 시티와 8강 1, 2차전에서 세 골을 몰아치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승승장구한 토트넘은 결승에서 리버풀과 우승컵을 놓고 맞붙는다.

일본 '풋볼채널' 은 전날 지난달 유럽 주요 리그에서 최고 활약을 펼친 공격수 랭킹을 공개하며 손흥민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풋볼채널' 은 손흥민을 향해 "토트넘에서 뛰는 아시아 No.1 공격수다.

양발에서 나오는 정확한 슈팅, 뛰어난 속도, 날카로운 드리블이 매력적이다. 주로 측면에 기용되지만, 4월에는 해리 케인의 부상 등의 이유로 투톱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공격수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 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손흥민의 힘이 발휘된 것은 UCL 8강 맨시티전이다. 1차전 홈경기에서 귀중한 결승골을 넣었고, 2차전 원정에서 중요한 원정 2골을 빼앗았다. 최고 무대에서 날개를 펼쳤다. 토트넘은 4강을 넘어 결승에 진출, 손흥민은 확실한 주인공" 이라고 호평을 쏟아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우즈 "도쿄올림픽 출전하고 싶다"

다섯 번째 마스터스 우승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 의사를 내비쳤다.

15일 '서울신문' 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국 뉴욕주 파밍데일에서 열린 제101회 PGA 챔피언십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올림픽에 나가 본 적이 없어서 출전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면서 "지금의 나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고 답했다.

우즈는 슬럼프가 바닥을 향하던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2017년 11월 1199위까지 떨어졌던 세계랭킹을 현재 6위까지 끌어올린 우즈는 "대표팀에 뽑힌다면 매우 기쁜 일이 될 것" 이라며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출전 대회수를 늘릴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올림픽 출전 자격이 세계랭킹에 의해 주어지는 만큼 랭킹을 더 올리기 위해 출전 대회를 늘릴 가능성까지 열어 둔 셈이다.

리우올림픽 당시 국제골프연맹(IGF)은 대회 4주 전인 2016년 7월 11일까지 2년 동안의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출전권을 부여했다. 랭킹 15위까지는 자동출전권을 주되 1개 국가의 최대 출전 인원은 4명으로 제한했다.

당시 미국은 랭킹 15위 이내의 선수가 7명이나 돼 최대치인 4명에게 출전 자격을 부여했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이날 "지난 4월 25일 우즈가 트위터에 올해 10월 일본에서 처음 열리는 PGFA 투어 조조챔피언십 출전을 확정 발표, 1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됐다." 면서 "그러나 우즈는 사실 그동안 올림픽 대회장인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의 가스미가세키 골프클럽도 몇 차례 방문해 연습라운드를 도는 등 코스 파악에도 미리 열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전했다

리우대회 당시 우려됐던 지카바이러스를 이유로 불참했던 매킬로이는 다만 "영국보다는 아일랜드 대표로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면 더 기쁜 일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강정호, IL 등재 '재활 위한 시간 벌기' 의혹

강정호(32·피츠버그)가 타격 부진에 10일 부상자 명단(IL)에도 올랐다. 피츠버그가 시간을 벌기 위해 수를 썼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스포티비뉴스' 에 따르면 피츠버그는 전날 좌측 옆구리 염좌 사유로 강정호를 10일 IL에 올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 대신 제이크 엘모어를 25인 로스터에 등록했다. 강정호의 시즌 첫 IL 등재다.

현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강정호 부상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다. 그간 꾸준히 이 부위에 통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토드 톰칙 피츠버그 의학 담당 디렉터는 "강정호는 최소 3일은 완전히 훈련을 중단할 것이며, 그 후 재검진을 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DK피츠버그스포츠' 의 베테랑 담당기자인 존 페로토는 14일 "강정호는 많이 뛰지 못했지만, 당분간은 아예 뛰지 못할 예정이다. 피츠버그가 엄청난 타격 부진에 빠진 이 3루수를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면서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강정호의 이번 부상은 요즘 메이저리그의 많은 부상처럼 조금 수상해 보인다." 고 전했다.

페로토는 "피츠버그는 이번 조치로 강정호를 인디애나폴리스(구단 산하 트리플A 연고지)로 보내 최장 20일의 재활을 할 기회를 얻었다." 면서 "재활은 옆구리를 치유하는 것보다 그의 스윙을 고치는 데 더 중점을 둘 것" 이라고 주장했다.

IL에 오른 경우, 투수는 최대 30일, 야수는 최대 20일 동안 재활 경기를 할 수 있다.

한편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17일 여전히 피츠버그에 강정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피츠버그가 강정호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에서 가장 완벽한 3루수" 라며 피츠버그 구단이 강정호에게 기회를 더 줄 것으로 예측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업소명(한글) :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Since 1994

Tel: 714.530.1367 / Fax: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